

회
고
록

1987,
내가 겪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김정남 _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 수석비서관

영화 '1987'이 상영되면서, 6월 항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 영화에서 내 이름이 거명되고 영화에서 비중 있는 배우가 내 배역을 맡은 탓인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화 내용이 사실이나, 당신이 그렇게 살아 왔느냐는 등 나는 갑자기 적지 않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표적이 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지만, 어떤 것은 영화가 갖는 상상력과 기법이 동원된 측면도 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에 의한 죽음을 당했을 때 나는 수배 중이었다. 어디 공개적인 장소에 나타나거나, 밖에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2·7 추모 집회나 3·3 49재 행사 때에도 나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

철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6월 항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그 사명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내 계획이 맞아떨어진 것도 있고, 또 행운이 우리와 함께 해준 것도 있다. 그것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과 우연이 겹쳐지면서, 나는 역사적 필연, 하느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역사의 손길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의 아주 오래된 성공회성당에는 나무에 이런 낙서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섭리와 필연으로 이루어졌다는 신앙고백인데, 나 역시 박종철의 6월 항쟁을 겪어 나오면서, 인간의 힘이 아닌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한때는 혁명을 꿈꾸었던 젊은 시절이 있었고 사회과학도로서 운명 같은 것은 믿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겪은 6월 항쟁은 예정된 길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글에서 6월 항쟁의 뒤편길에서 내가 겪은 일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더듬어 찬찬히 적어 나가고자 한다. 대개는 알려진 것들이지만, 혹 그렇지 아니한 생소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부영의 도피와 구속

아무래도 이부영의 수배와 도피로부터 이 글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부영은 그때 이제 막 재야 민주화 투쟁의 구심으로 자리 잡아 나가기 시작하는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사무처장이었다. 1974년 동아 자유 언론 수호 투쟁위원회로부터 시작된 그의 재야 민주화 투쟁은 이제 언론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재야 민주화 운동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그가 재야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그에 대한 기대와 전망도 컸고, 비례해서 전두환 정권의 감시와 탄압도 높아갔다.

그 이부영이 1986년 5월 3일의 이른바 ‘인천사태’로 쫓기는 몸이 되었다. 쫓기는 것은 그만이 아니었다. 5·3 인천사태를 계기로 전두환 정권은 민통련과 재야 관계자 37명, 자민투·민민투 관계자 27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수배령을 내렸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5·3 인천사태 배후 인물로 45명을 지목해서 특별 수배령을 내렸는데, 이부영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 인물이었다. 1986년 상반기에만 수배자는 400여 명에 이르렀다.

내가 쫓기는 이부영을 만난 것은 5월 하순경이었다. 몹시 당황스런 모습으로 우선 당국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이라도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수배 중인 많은 사람들이 숨을 곳을 마련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우선 역촌동에 있는 고영구 변호사의 집을 알선했다. 고영구 변호사라면 능히 이부영을 수용해줄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과연 고영구 변호사는 나의 청을 흔쾌히 받아주었다. 자신이 이부영 처럼 직접 나서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지는 못하지만, 쫓기는 사람 하나쯤은 기꺼이 거두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이부영은 일단 고영

구 변호사의 집에 안착했다. 이부영은 고영구 변호사 집에 있으면서 수시로 밖을 조심스럽게 드나들며 재야 민주화 투쟁을 지휘하고 연락했다. 그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사람들도 많았다. 내가 ‘우리 시대의 의협(義俠)’으로 존경해 마지않았던 홍국 탄광의 박운배, 이선희 선배를 비롯해 민주화를 성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부영에 큰 기대를 걸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가 볼 일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역촌동 고영구 변호사의 집으로 돌아올 때면 불광동에 있는 내 집에 전화를 해서 나를 만나고 들어가곤 했다. 연신초등학교 앞 생맥주집이 우리들의 밀회 장소였다. “거기서 몇 시”가 우리들의 암호였다. 고영구 변호사 집에서의 생활이 비교적 편안했던지 이부영의 얼굴이 그런대로 펴서 통통하게 살도 올라, 저희들 도망자들끼리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부영을 부러워하더라는 얘기도 들었다.

그해 여름 어느 날, 이부영은 내게 이런 상의를 해왔다. 자신은 지금 고영구 변호사 집에서 편안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만약 언젠가 자신이 고영구 변호사 집에 있던 것이 드러난다면, 고영구 변호사는 구속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고영구 변호사가 모시고 있는 80 노모는 어떻게 될 것이며 신경성 위경련을 앓고 있는 고영구 변호사의 부인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온 집안이 풍비박산될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체포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밖에서 잡히게 된다면, 고영구 변호사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집을 따로 하나 물색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었고, 할 수만 있다면 그의 청을 들어주고 싶었다.

나는 1970년대에는 중앙일보사 앞에 있던 홍성우 변호사 사무실에 주로 나갔지만,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서울시청 옆 부산은행 빌딩에 있는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자주 나갔다. 거기에는 이돈명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는데, 김제형·유현석·이건호 변호사와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자주 나가다 보니 이들 변호사들 하고도 친해져 스스럼없이 그 사무실을 드나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돈명 변호사가 수입한 인권변론 사건의 기록을 본다든지 자료를 찾거나 심문 및 변론 요지서를 쓰는 등, 이돈명 변호사의 변론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짬을 내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부영의 처지를 말씀드리고, 혹 이부영이 밖에서 검거된다면 이돈명 변호사의 효자동 자택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해주실 수 있는가를 여쭙어보게 되었다. 내가 이돈명 변호사 덕을 생각한 것은, 그 집의 크기와 구조를 알고 있었고, 그분 연세라면 저들도 쉽게 구속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어설픈 계산도 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이돈명 변호사라면 내 청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때문이었다. 과연 이돈명 변호사는 나의 조심스런 제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듯, 너무 쉽게 “그렇게 하지 뭐” 하셨다. 물론 나는 이돈명 변호사가 당신 집에 이부영이 있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이부영에게 전했다.

그리고 얼마 뒤 늦가을 어느 날, 그 날도 이부영은 밖에 나갔다 고영

구 변호사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나를 만났다. 연신초등학교 앞 생맥주 집에서였다. 한참을 우리는 답소했다. 들어오는 입구를 보고 앉아 있던 이부영의 낮빛이 변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사람 하나가 맥줏집 안을 한 바퀴 휘돌아 나갔다. 이부영은 방금 돌아 나간 사람이 중앙정보부원이라고 했다. 나는 그 집에 뒷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터라, 이부영한테 뒤로 빠져나가라고 하고 한 시간 넘게 나 혼자 그 맥줏집을 지켰다. 그날 적어도 내 보는 앞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침 그날 밤 나와 이돈명 변호사 등 ‘거시기산우회’ 멤버들은 지리산 원정 산행을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밤차를 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부영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산행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이부영으로부터 무슨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고영구 변호사 댁에 연락하기도 조심스러워 그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로 알아보기로 했다.

그날 이부영은 그 맥줏집 뒷담을 넘다가 체포되었다. 나는 이튿날 서둘러 지리산 산행을 뒤쫓아 가 그날 저녁 뱀사골에서 일행과 합류했다. 그리고 이돈명 변호사에게 이부영이 체포된 사실과 그리고 이부영이 이돈명 변호사 댁에 있었던 것으로 진술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돈명 변호사는 담담하게 들으시기만 했고, 3박 4일인가 하는 지리산 중주산행을 예정대로 마쳤다. 돌아와서 당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권근술(전 한겨레신문 사장)이 이부영과 관련해서 조사받고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나와 이돈명 변호사 신변에 별다른 특이 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키 167cm, 건장한 체격’

산행에서 돌아온 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조마조마하기는 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상당히 긴 기간을 집에서 먹고 자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일단 고영구 변호사 집에 가 있기로 했다. 그렇게 집을 옮긴 그 다음날 저녁 뉴스에서 경찰이 새벽에 불광동 내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간발의 차이였다. 내가 그냥 집에 눌러앉아 있었다면 나는 영락없이 그날 체포되었을 것이다.

살아오면서 나는 여러 번 수배생활을 했다. 1964년 6·3 한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과 관련,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쫓기는 몸이 되었다. 젊은 날의 수배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학생 신분일 때는 아무데서나 잘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척 친척이나 친구 집에 찾아가 며칠 몸을 맡길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찾아온 수배는 심신을 고달프게 했다. 세상천지 내 한 몸 누일 데가 없는 것이다. 수배자가 한결 같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내 집 아랫목에 큰 대자로 아무 걱정 없이 누워 보는 것이다.

고영구 변호사 집에 있으면서 하루는 서초동에 있는 친구 김덕룡의 집을 찾아가는데, 서초역에 언뜻 내 사진 같은 것이 보였다. 가까이 가서 보니 나에 대한 수배전단이었다. ‘키 167cm, 건장한 체격’이라고 되어 있었다. 나는 항상 내 체격이 어릴 적 영양부족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해 왜소하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데, 건장하다는 얘기는 난생 처

음 듣는 소리였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리 집에는 중앙정보부원들과 경찰들이 주야 장천 진을 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들을 미행하는가 하면 아내의 출입은 더욱 철저한 감시의 표적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애비의 수배와 도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었다. 다행히 친구인 국회의원 홍사덕이 수시로 집에 와 아내와 아이들을 엄호해 주곤 했다. 내 집은 바로 옆이 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산에도 마을에도 그들이 상주하면서 내 집을 감시했다.

아내가 외출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미행했다. 성당에 가서 미사를 올릴 때조차 그들은 앞뒤로 밀착 감시했다. 성찬례를 위해 제대 쪽으로 나갔다가, 성찬을 받아 모시고 돌아오면 자리에 두었던 가방이 없어지기 일쑤였다. 미사가 끝난 뒤에 보면 성당의 맨 뒷자리에 가방이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 동안에 가방을 샅샅이 뒤져 나와 연락하는 수상한 흔적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되돌려준 것이다.

나에 대한 수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집안의 살림은 국회의원 홍사덕이 처음부터 끝까지 돌봐주었다. 국회에서 세비가 나오면 맨 먼저 일정한 부분을 떼서 우리 집 생활비로 주었다. 홍사덕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나의 수배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의 엄호와 보살핌은 우리 가족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한때는 역시 수배 중인 전병용의 주선으로 그와 더불어 강동구 상일동 교도관 출신인 최양호의 집에 상당기간 머무르기도 했다. 수배 중의 몸으로 북한산·도봉산 등 산에 오르기도 했는데, 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 당황하기도 여러 번이었고, 몸을 숨겨야 할 때도 있었다. 그때는 5·3 인천사태로 쫓기는 사람이 하도 여럿이어서 때로는 그들과 연락하여 산행을 하기도 했는데, 수배 전단이 곳곳에 붙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고영구 변호사가 굳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마지못한 척 하고 들어가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그 집에 있었다. 지금 부장판사가 되어 있는 아들 종영이 고3이었고, 딸 은영이 이화여대 2학년인가 3학년이었다. 고영구 변호사는 내가 불편해할 것을 염려해서 그 어머니를 다른 형제 집에 가 계시게 하고 나를 부른 것이다. 모두가 나를 위한 따뜻한 배려였다. 그렇게 나는 고영구 변호사 집에서 한 식구처럼 어울려 이후의 수배 생활은 심신이 모두 편했다.

도피 생활을 그냥 무위도식으로 허송세월 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톨릭여학생관에서 진행했던 월요 강좌의 녹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글로 풀기 시작했다. 그것은 꽤 힘든 작업이었다. 녹음기의 성능이나 녹음의 질이 요즘음과는 현격하게 다르게 열악한데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애를 먹었다. 이렇게 내가 그 녹음을 풀어서 나온 책이 『이 땅에 살기 위하여』(1987.10 햇빛출판사)이다.

제1권은 이보다 앞서 1985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내가 그 육성을 들으면서 풀어낸 강좌의 강사들 면면을 보면 실로 다채롭다. 함세웅, 리영희, 강만길, 유인호, 문병란, 송기숙, 성래운, 김지하, 지학순, 김병걸, 정호경, 이효재, 권기종, 유재천, 신경림, 이동준(제2권), 김낙중, 현기영, 제정구, 고영구, 박재일, 문익환, 황인성,

이병호(신부), 김금수, 허영, 정태기, 김진균(제3권) 등이 바로 그들이다.

수배와 도피 기간 중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로 따뜻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베풀어준 호의도 적지 않았다. 김수환 추기경이 가톨릭 여학생관을 통해 내게 2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적지 않은 분들로부터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다. 한번은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있던 후배 김홍명을 만났는데 헤어질 때 내 호주머니에 돈을 찢러주었다. 바로 펴볼 수는 없고, 손으로 헤아려보니 다섯 장이었다. 5만 원인가보다 생각했는데 막상 펴보니 2만 3천 원이었다. 그는 자신이 타고 갈 차비조차 안 남기고 딱딱 털어 나에게 주고 간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이 보내준 20만 원은 끝까지 쓰지 않고 있다가, 수배가 풀린 뒤에 아이들 학비에 보태 썼다. 깨끗하고 좋은 돈은 따로 모아 아이들 학비에 쓴다는 이돈명 변호사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부영이 나를 만나러 왔을 때, 그의 호주머니에는 그날 낮에 만난 이선희 선배로부터 도피 자금 조로 받은 3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 간 이부영에게 그 돈의 출처를 밝히라고 그들이 요구하자, 이부영은 그 돈을 나로부터 받은 것으로 진술함으로써 나는 범인 은닉과 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공식 수배자가 된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나를 연행, 조사할 빌미를 찾고 있던 터에 이부영이 명분을 달아준 것이다. 그때부터 그들은 나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만약 내가 그때 체포되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가혹한 처우를 받았을 것이다. 영화에서도 그들이 나를 잡는 데 총력을 다 기울이는 모습이 나오

는데, 그때 만약 잡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오작하다.

감옥에 간 이돈명 변호사

농가성진이라고 했던가. 이부영이 이돈명 변호사 댁에 숨어 있던 걸로 하기로 했던 것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부영이 체포되고 이돈명 변호사와 내가 지리산 산행을 마치고 돌아온 얼마 뒤, 그날도 나는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나가 있었다. 그날은 마침 이돈명 변호사의 오랜 친구이자 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동료 변호사인 유현석 변호사의 아들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다. 오전 11시경쯤이었을 것이다. 사복을 입은 경찰관 여럿이 들어와 이돈명 변호사를 연행하려 했다. 올 것이 온 것이었다. 이돈명 변호사는 오후에 혜화동 성당에서 있을 친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나서 연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들은 마지못해 거기에 응하면서도 자신들이 혜화동성당에까지 동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렇게 해서 그날 오후 이돈명 변호사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나는 이돈명 변호사의 자택으로 찾아가 전후의 사정을 그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저녁이 되자 연행되었다는 소식들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가운데는 가톨릭농민회 지도 신부로 있던 정호경 신부도 있었다. 가족들은 줄지에 천만 뜻밖으로 당하는 일이라 무척 당황해 했고, 찾아온 손님들 역시 노(老) 변호사의 연행에 어안이 병병

해 했다. 저녁 9시 뉴스는 그 말미에 이돈명 변호사의 구속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찾아온 손님들이 하나 둘 돌아갔지만, 나는 차마 그 집을 나올 수도,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갈 곳이 없었다.

이돈명 변호사를 구속에 이르게 한 장본인으로서 그 가족들 앞에서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 가족들을 위로한다는 핑계로 나는 그날 저녁을 이돈명 변호사 댁에서 보내기로 했다. 큰 아들 영일이 자신의 집에 전화하면서 손님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밤 12시가 다 돼서 한 부대의 경찰이 집을 에워싸고 일부는 집 안으로 들어 닥쳤다. 가택수색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큰 아들은 법대 출신이어서 영장 없는 가택수색을 할 수 없다고 버틸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순순히 가택수색을 허락했다. 나는 서둘러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 숨었다. 그들은 안방의 장롱 문까지 열어보는 등 집안을 구석구석 다 뒤졌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안방에 화장실이 달려 있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가까스로 그들의 호구를 벗어났다. 그것은 천행이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나는 세종로성당 새벽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나가는 사모님을 따라 나와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을 걸었다.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돈명 변호사는 이부영을 숨겨준 전후의 사정에 대해서 추궁을 받았다. 뒷날 이돈명 변호사의 술회에 따르면 차마 자신이 먼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부영을 숨겨주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숨겨주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어 “이부영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다”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

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부영이 여기 있으니 만나게 해드리겠다”면서 이부영을 데리고 왔다. 데려온 이부영은 이돈명 변호사를 보고 “제가 선생님 댁에 있을 때 이려고 저려고……” 하길래 “자네 말이 맞네” 하고 맞장구를 쳐줬다는 것이다. 이돈명 변호사의 눈에 그들도 이부영이 이돈명 변호사 댁에 있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눈치 채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권 변호사로 자신들에게 눈엣가시 같았던 이돈명 변호사 같은 대어(大魚)가 제 발로 걸어 들어 왔다고 생각하면서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돈명 변호사가 달리 부인하거나 이의를 달지 않으니까 더 이상 시시콜콜 조사하고 말고 할 필요 없이 그날 저녁으로 구속해버렸던 것이다.

며칠 뒤 그들은 이돈명 변호사 댁에서 장학생으로 숙식을 하고 있던 서울의대생 이윤을 연행해갔다.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하게 이부영이 이돈명 변호사 댁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이부영을 데려다 대질시켰는데, 이때도 이부영은 눈을 깜박거리면서 너는 2층의 저 방에 있었고 이쪽에 내 방이 있었지 않았느냐고 선수를 쳐서, 그것을 눈치 채고 이윤이 시인하는 것으로 수사는 매듭지어졌다.

나는 이돈명 변호사가 구속된 뒤, 김수환 추기경에게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된 전후의 사정을 편지로 자세히 적어 알렸다. 그리고 서둘러 남아 있는 인권변호사 4인방, 즉 조준희·홍성우·황인철과 고영구 변호사를 만나 사건이 여기에 이른 과정을 밝히고,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이돈명 변호사가 자기 대신 범인 은닉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을 알게 된 고영구 변호사는 펄쩍 뛰었다. 자신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들어

가겠노라고, 연세 많은 이돈명 변호사를 감옥에 대신 보낼 수는 없다고 울면서 말했고, 그 얘기를 듣는 다른 변호사들도 나도 모두 눈물을 글썽였다. 여러 가지 상황과 법률을 검토해 나가던 변호사들이 최종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었다. 이돈명 변호사가 일단 범인 은닉 혐의를 시인했을 것이므로, 설사 사실대로 모든 것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결코 자신들이 모처럼 낚은 대어인 이돈명 변호사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몰아서라도 결코 구속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고, 고영구 변호사는 범인 은닉의 진범으로 새로 구속될 수 밖에 없으니, 두 사람이 모두 구속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돈명 변호사)의 구속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이 낸 결론이었다.

한편 이돈명 변호사는 자신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범조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고민이 많았다. 이돈명 변호사는 김수환 추기경과 윤공희 대주교가 감옥으로 면회를 왔을 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신앙인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진실을 말하자니 말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괴롭다고 호소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다만 “그러니까 당신이 더 훌륭하다”는 말만 했다. 그것은 윤공희 대주교도 마찬가지였다. 이돈명 변호사는 김수환 추기경과 윤공희 대주교로부터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교회의 사면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재판정에서는 훌가분한 심정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자신이 쫓기는 이부영을 숨겨준 행위는 양심에 비추어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판은 1회로 마무리되었다. 사실 관계를 다루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

두 인정한 까닭이었다. 검사의 논고가 있고 난 뒤, 이돈명 변호사는 토마스 모어의 『유포피아』가 실은 정의와 형(刑)의 공정이 실현되는 사회에 다름 아니라면서, 국가보안법의 확대 적용과 남용을 자신의 이 사건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최후진술을 했다. 이돈명 변호사는 결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도 포기했다.

이리하여 이돈명 변호사는 예순을 훌쩍 넘긴 연세에 1986년 겨울을 감옥에서 냈다. 그때까지 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던 이돈명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고행이었다. 재판이 끝나고는 안양교도소로 옮겨졌지만 징역을 같이 사는 죄수들이나 교도관들이 보살피고 감싸주어 감옥생활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돈명 변호사는 감옥 안에서 자신이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하는 것을 실감했다. 모처럼 느긋하게 책을 볼 수도 있었고, 자신이 바쁘게 살아온 삶을 관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돈명 변호사는 이때의 감옥 생활로 협심증과 심부전증을 얻었다.

감옥 밖의 고영구 변호사는 그해 겨울 내내 냉방에서 지냈다. 연세 높은 이돈명 변호사가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데, 자신이 어떻게 불기 있는 방에서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돈명 변호사가 감옥에 있는 동안 가장 안타깝고 괴로워했던 것은 나였다. 나는 이돈명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는 수시로 비둘기를 날려 이돈명 변호사에게 죄송스러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이돈명 변호사의 감옥행을 사실상 기획, 연출한 것이 나 자신이다 보니, 나는 그 가족들 앞에서도 언제나 죄인이었다. 그 가족들에게 죄송스럽기는 이부

영이나 고영구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돈명 변호사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돈명 변호사는 물론 가족 누구도 이돈명 변호사가 구속되었던 것에 대해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만기 출소한 이돈명 변호사는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법조계 대표위원으로서 6월 항쟁을 이끌었다.

감옥에서 온 이부영의 편지

아마도 3월 중순경이었을 것이다. 그날 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이영철(6·3사태 연세대 중심인물)이 와서 모처럼 회포를 풀고 저녁에는 남부터미널 전철역 부근에 있는 유원호텔에 그와 함께 묵었다. 매우 큰 온돌방이었는데 방이 너무 뜨거워 입구 쪽으로 밀려와 잤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와 헤어지면서 전병용을 만난 지 꽤 오래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그의 안부가 궁금해서 상일동 최양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전병용과 가까스로 통화할 수 있었다. 전병용은 그러지 않아도 나를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다면서 서둘러 내게로 달려왔다.

그는 나에게 두 통의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하나는 이부영이 감옥 안에서 2월 23일에 쓴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3월 1일 자로 쓴 추신(追伸)이었다. 앞의 것은 16절지 갱지에 쓰여 있는데 반해, 후자는 교도소의 근무 용지에 쓴 것이었다. ‘우촌 전(友村 前)’하고 바로 ‘박 군 전으로 구속된 조·강 건은 완전 조작극이야’로 시작하고 있는 편지였다. 박종철

발표해놓고, 치안본부 측이 벌이고 있는 설득과 회유 등 공작 내용과 2월 27일, 이들이 담당 검사에게 박종철 군 고문치사의 전말과 자신들이 범인으로 몰린 경위에 대해 진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잘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서 거꾸로 이들에 대한 가족 면회와 교도관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전병용을 통해서 전달받은 두 통의 편지 외에, 전병용이 체포되어 구속된 후 한재동이 직접 내게 전달한 2통의 편지가 더 있다. 이 편지들은 각각 4월 3일과 4월 7일에 쓰인 것이었다. 앞의 편지에서는 지난 2월 말 갑자기 법무부장관이 영등포교도소를 방문하여 “밖과 몰래 연락하는 직원은 없는가” 묻고 나서 이들이 곧 이감 갈 것이라고 예감했다는 것(실제로 이들은 3월 7일자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 갔다)과 진범이라 할 3명이 다른 직원들이 모은 것 말고도 별도로 돈을 모아 조한경의 집에 전달하면서 밖에서 저희들도 노력하겠다고 했다는 것, 강진규는 조한경의 1반이 아니라 5반의 반원이었는데, 박종철에게 황정운(서울대학교 학생)에 관해 물어보려면 와보라는 연락을 받고 가서, 바짓가랑이를 걸고 옥조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 등 보다 상세한 뒷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4월 7일에 쓰인 편지에서는 조한경이 직접 물고문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조장(組長)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려 했을 뿐인데도, 자유를 잃고 있는 가운데 조작 발표를 먼저 하고 그 발표에 수사를 맞추어 나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2년만 고생하면 빼내 주겠다고 수원·영등포 어느 곳이건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서 지내게 하겠으며, 가족들

의 생계, 출소 후의 앞날도 보장하겠다고 했다는 것 등 치안본부 고위층의 공작 내용을 알려주고 있었다. 조한경은 그들 진짜 고문 경관 세 사람이 자신의 가족에게 전달한 돈을 공판에서 증거물로 제시할 심산이라는 것까지 취재해서 알려온 것이다.

이부영의 4통의 편지는 실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는 이부영이 어떻게 이처럼 구체적으로 은폐·축소 조작의 과정을 알아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하필이면 고문 경관들이 이부영이 먼저 들어와 있던 영등포교도소로 왔을까, 그 만남이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 뒷이야기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비로소 그 전후 사정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25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은 그때까지 이부영의 취재를 도운 2명의 교도관이 아직 현직에 있었기 때문이다. 안유 보안계장(74)과 한재동 교도관(71)이 바로 그들이다.

1월 17일 새벽, 고문경관 2명(조한경, 강진규)이 오리털과카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들어왔다. 이부영이 있던 사동은 애초 여성 재소자들을 수감하는 여사동이었는데 죄수들을 다른 교도소로 내보낸 뒤, 두 경관이 들어온 것이다. 면회를 다녀온 뒤면 강진규는 흐느껴 울었고, 나중에 교회장로가 된 조한경은 교도소 안에서 찬송가를 소리 내어 불렀다.

며칠 뒤 치안본부 대공분실 관계자들이 찾아와 특별면회를 신청했다. 그들은 면회현장에 교도관이 참석해서도 안 되고 기록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것은 규정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록을 하지 않는 대신 간부가 입회한다는 조건으로 면회가 이루어졌다. 바로 이 면

회 현장에 입회한 교도소 간부가 안유 보안계장이었다. 당시 한재동은 영등포교도소 안에서 수감 같은 것을 만드는 철공장에서 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여기서 안유는 치안본부 대공분실 간부들이 조한경 강진규 두 사람에게 고문치사 사건을 떠맡아 지고 가라고 하고, 두 사람은 왜 우리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하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문 경관 3사람의 이름을 들어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각각 1억 원씩 든 통장을 흔들어 보여주면서 두 사람이 죄를 떠맡아 저주면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조만간 가석방으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다.

당시 이부영은 공식적으로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된 정치범의 대표자격이어서 교도소 간부인 안유와 공식·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일이 더러 있었다. 이때 이부영이 저들이 밤에 울고 소리 지르는 이유를 묻자 안유가 자기가 듣고 본 내용을 이부영에게 알려주었다. 이부영은 자신이 들은 내용을, 업무가 끝나면 자신에게 들르는 교도관 한재동에게 종이와 볼펜심을 달라고 해서 나에게 편지로 쓴 것이다. 이부영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유에게 박종철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없애라고 연락했다. 혹시 밖에서 폭로가 이루어지면 안유가 다칠 것을 염려해서다. 고문 경관 2명이 3월 7일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된 것도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012년 1월 14일, 박종철 25주기 추도식에 처음으로 한재동 교도관과 함께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낸 안유는 추도식에 나서기가 부끄러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학생과 민주인사들을 탄압한 사람 중 하납니다. 그들을 나는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들이 던진 짬밥 통에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가해자의 편, 탄압자의 편이었고, 전두환의 친구, 사냥개였습니다. 그것이 미안했기 때문에 추도식에 참여하는 일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교도관에서 수인으로

내가 전병용을 처음 만난 것은 1970년 서울구치소에서였다. 그때 전병용을 비롯한 일단의 교도관들은 자신들의 복지문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구치소 직원들의 복지와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수시로 모임을 갖고 공부도 하고 대책도 논의했다. 나는 그들의 상담 대상 중의 하나로,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79년 초에는 서울구치소 직원 공제회가 발기되고 회지 발간도 모색되었다. 법무부 당국은 교도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싹부터 자르기 위해, 이들을 지방으로 전보를 보냈다가 마침내는 옷을 벗기거나 구속까지 시켰다. 전병용은 순천교도소로 전보되었다가 구속이나 퇴직이나를 강요받고 구속보다는 스스로 퇴직을 선택했다. 이로부터 전병용은 아주 자연스럽게 민주화 운동 진영의 일원이 된 것이다.

5.3 인천사태로 쫓기던 이부영은 처음에 잠시 전병용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쫓기면서도 서로 연락망을 유지하는 것이 도망자들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역시 쫓기는 장기표가 이부영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는 장기표가 이부영을 만나러 전병용의 집에 왔는데, 그때 마침 이부영은 집에 없었다. 전병용의 집은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만났던 수배자들의 1차 피신처가 되어 있었다.

이부영이 장기표와 통화할 때 ‘하원이 아빠’(장기표)라고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경찰이 들이 닥쳤다. 그때 장기표는 전병용의 아들 세민이와 공부하고 있다가 전병용이 보는 앞에서 체포되었다. 전화가 도청된 것이었고 순식간의 일이었다. 그들은 의외의 거물을 검거했다는 흥분 때문인지 성급하게 장기표를 끌고 밖으로 사라졌다. 이때를 틈타 전병용은 집을 나왔다. 뒤이어 이부영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전병용의 부인은 장기표가 잡힌 것과 전병용이 피신한 것을 알렸다. 이부영은 가까스로 화를 면했고 전병용은 이때부터 도피생활을 해야 했다.

나에게 편지를 전한 이틀인가 사흘 뒤, 강동에서 전병용이 체포되었다. 체포되던 날도 그는 역시 도망자 김도연과 함께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러 가는 중이었다. 경찰들이 그를 발견하고 쫓아오자 그는 김도연이 도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면서 체포되었다. 전병용은 수배자들의 거취를 알려주면 내보내 주겠다는 경찰들의 제의를 코웃음으로 받아넘겼다. 더 이상 전병용에게서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3일 만에 검찰에 넘겼고, 그는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영등포구치소는 1969년 창설될 때 전병용이 서울교도소에서 차출되어 나와 근무했던 곳이다. “교도소를 지은 놈들은 틀림없이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다”는 속담이 있다. 그 말이 씨가 되었는지, 전병용은 18년 만에 그 교도소에 이제는 수인(囚人)으로 들어온 것이다.

검사 김원치의 이름으로 제기된 공소사실은 지극히 간단했다.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 공소 외 이부영이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신한민주당 개헌 추진 인천·경기지부 결성” 및 현판식이 개최됨을 기회로 민통련 및 23개 산하 가맹단체 회원들을 동원, 대규모 시위를 벌여 소요를 야기하는 등의 죄를 범하고,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동인의 체포를 면하게 할 생각으로 1986년 5월 10일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182, 홍연아파트 3동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 문간방에 유숙케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것이다.”

재판은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두 번째 공판에서 검사는 전병용에게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범인 은닉으로는 법정 최고형이었다. 논고에서 검사는 범인 은닉의 상습적 죄과를 범했음에도 개선의 정이 없고 피고인이 전직 공안직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 그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면서 보복적 구형을 한 것이다. 결심 공판에서 전병용은 다음과 같은 최후진술을 했다.

어쩌면 지금쯤 나는 어느 교도소의 교도관으로서 재소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평범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죄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징역살이를 하는 수많은 노동자, 지식인, 민주인사들을 만나면서 나는 부패한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의 억압과 천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곤 하는 저 억울한 민중의 편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결심을 서서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부영 씨는 숨을 이유도 없고 숨겨주어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 그가 머무를 수 있는 땅은 틀림 없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며, 만약에 또 다시 그가 나를 찾아온다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불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의 대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기꺼이 수행하겠습니다.

전병용의 최후진술은 교도관 사회는 물론 민주화 운동 진영에도 적잖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반성하면 내보내 준다는 회유에도 굴하지 않은 당당함과 진술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교도관들은 과거 자신들의 한 동료가 당당한 민주투사로 나타나 뚜렷한 소신을 밝히는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당시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부영도 크게 감동을 받았다. 전병용의 최후진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그를 교도관의 전설로 길이 남게 했다. 그 해 4월, 전병용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1987년 6월 항쟁의 대열에 합류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

나는 이부영의 편지를 받고, 박종철이 죽은 1월 14일 이후의 신문을 모조리 뒤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래,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을 추적하였다.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언론의 보도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꺼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고 있었다. 또한 2·7 국민추도회, 3·3 49재 등을 비롯한 재야 민주화 운동 진영의 움직임도 면밀히 추적하였다. 혹시 행간에라도 새로운 사실이 있는가 싶어 박종철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란 기사는 모두 스크랩했다. 수배 중의 몸이라 행동이 부자유했기 때문에 이부영이 알려진 내용을 사실로 직접 확인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4월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이부영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침삭, 종합하여 언젠가 발표할 문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실이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 그것을 발표될 문건에 다시 포함하기를 거듭했다.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발표된 성명의 제목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였고 모두 11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과 11항은 처음부터 확정, 정리되어 있었다. 조작과 은폐 음모를 곧바로 국민에게 전하기 위하여 1항에 바로 고문경관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11항의 결론 부분은 내가 이부영의 편지를 받으면서,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느꼈던 나의 소회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었다. 실제로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 1항과 11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게 한 하수인은 따로 있다. 박종철 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5과2계 학원분과 1반장 조한경 경위와 5반 반원 강진규 경사는 진짜 하수인이 아니다.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진짜 범인은 학원분과 1반 소속 경위 황정웅, 경사 방근곤, 경장 이정오로서 이들 진범들은 현재도 경찰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1항)

이 사건 범인 조작의 진실이 박종철 군의 진상과 함께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연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의 도덕성이 회복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결말이 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진실과 양심 그리고 인간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관건이 이 사건에 걸려 있다.(11항)

사실 2항에서 10항까지는 1항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언론보도의 내용을 취합 정리한 것이었다. 범인 조작의 내용과 그 조작을 담당·연출한 경찰간부의 명단과 검찰과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이 사건 조작 축소 은폐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 등을 담고 있었다. 1항의 발표 내용 중 경사 방근곤, 경장 이정오는 반금곤과 이정호의 오기였다. 그것은 당초 이부영의 편지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이부영이 안유로부터 들을 때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 안유가 치안본부 사람들의 조한경과 강진규 면회 과정에서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착오라 할 수 있는 것은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게 한 하수인은 따로 있다”고 하여 마치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는 박



No. 1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에 범인이

진사되어 있다.

1. 박종철 군은 고문치사에 범인은 대인이다.

이 박종철 군은 고문 경리는 사람이다.

라 세 사람이며, 범인으로 범인 기소된

어 대인 계 범인 있는 시간 치인 본 부

대 범인 시간 범인 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경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신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No. 18

1987년 11월 11일 "고문치사사건" (고문치사사건 4인 24인(자))

11.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범인

종철 군에 대한 고문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것처럼 쓴 것이다. 분명 잘못이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경관이 더” 있다고 표현해야 할 일이었다. 이 역시 이부영의 편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생긴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 과제였다. 나는 신민당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발표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했다. 김영삼 총재의 비서실장 김덕룡에게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다. 서울시청 옆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김덕룡의 부인을 통해서 김덕룡과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락은 고영구 변호사의 따님인 고은영 양이 맡아서 했다.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다. 대정부 질의를 신청한 의원들 가운데서 발표해줄 사람을 찾았다는 연락도 받았다. 김동영 원내총무도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러나 정작 발표할 시간이 다가와 발표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나서부터는 그 국회의원 “자신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사정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더 이상 진척시킬 수도, 기대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의원을 비겁하다고 탓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엄혹한 시대였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을 각오하거나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 무렵은 유성환 의원이 아무 것도 아닌 국시(國是)발언 하나로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제 사제단만이 희망이었다. 이렇게 발표가 늦어질수록 발표될 문건의 항목이 늘어났다. 언론보도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계속 첨가해야 했

기 때문이었다. 야당의원의 대정부 질의를 통한 발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뿐이었다. 처음부터 사제단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사제단에게 짐을 또다시 지우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1974년 12월의 최종길 교수에 대한 중앙정보부에서의 고문치사 사건과 1975년의 인혁당 사건에 대한 조작 내용을 폭로할 때도 나는 사제단의 보호 아래 그 원고를 썼다. 그때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사제단에게 의탁한다는 것이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바로 얼마 전, 정부와 언론의 비밀통신문이라 할 ‘보도지침’을 폭로할 때도 내가 사제단을 끌어 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가고 아무리 둘러봐도 기댈 데가 없었다. 명동성당의 김수환 추기경과 함세웅 신부에게는 고영구 변호사의 부인이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황국자 여사를 통하여 서신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 당시 구파발성당의 주임신부가 해외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이면 함세웅 신부가 구파발성당에 가서 주일미사를 집전했다. 황국자 여사는 명동성당과 구파발성당을 오가며 발품을 팔았다. 5월 18일에 광주민주화 운동 7주기 기념미사를 올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성명의 발표여부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해서 여간 초조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최악의 경우 수배 중인 김정남이 확인해서 제보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발표한다고 밝혀도 좋다고 간곡히 졸랐다. 그래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다.

뒤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5월 11일 함세웅 신부는 내가 보낸 편지와

성명서 초안을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여드렸다고 한다(평화신문 1448호, 2018/1/14).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은 나에게 대한 믿음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대단히 신중한 표정이었다는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 발표로 인하여 이미 구속된 두 명의 경관이 더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닌가를 염려했다고 한다. 1975년의 인혁당 구명운동이 오히려 8명의 사형 집행을 앞당기게 했던 것을 연상하셨던 것이다. 함세웅 신부는 교우인 유현석 변호사와 황인철 변호사를 만나 내가 쓴 성명서 초안을 검토하여 최종본을 완성했다.

전주에 있는 문정현 신부에게는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추어 서울로 올라올 것을 당부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었다. 그러면 서도 함세웅 신부는 겁이 나서 발표를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 해 5월 17일은 일요일이었다. 함세웅 신부가 구과발성당에 가서 주일미사를 집전하는 날이었다. 황국자 여사가 구과발성당으로 함세웅 신부를 쫓아왔다. 황 여사를 보고 함세웅 신부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황 여사가 가져온 나의 편지에는 “사제단이 십자가를 쳐주어야 한다. 이 나라 이 국민의 운명이 사제단의 어깨에 달려 있다. 이 일은 오직 신부님들만이 할 수 있고 또 신부님들이 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것을 읽고는 “그래, 할 수 밖에 없구나.” 결심했다는 것이다(한겨레신문 2017/6/12)

그날 미사를 마치고 함세웅 신부는 홍제동성당으로 김승훈 신부를 찾아갔다. 그런데 이 날도 김 신부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것이었다. 이전에도 몇 번 어머니가 비켜주지 않아 허탕을 쳤

다. 두 사람이 만나면 어머니 가슴 태우는 얘기를 할 것이 뻔하니까 함세웅 신부가 김승훈 신부를 만나러 갈 때마다 아들이 염려되어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셨던 것이다. 이날 함세웅 신부가 “김 신부님과 둘이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 비켜주세요” 했더니 “내가 다 알아” 하시면서도 나가시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김 신부 어머니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우리 아들이 웅덩이에 빠졌다, 기도를 하니 성모님이 구해 주셨다”면서 “내가 함 신부가 우리 아들 신부한테 하는 얘기 다 알아! 그러니 내가 있어야 해”하셔서 “성모님이 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걱정 말고 나가주세요”라고 말씀드리니 겨우 방을 나가셨다. 정말 천우신조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비로소 김승훈 신부에게 그 동안의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내일 미사가 끝나자마자 성명서 발표는 신부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김 신부님도 기쁘게 “그래! 이번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했다. 그 말은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함세웅 신부는 명동의 사무실로 돌아와 수녀에게 성명서 1천장을 복사하도록 했다. 그리고도 걱정이 돼 밤 11시 반쯤 김수환 추기경 방으로 갔는데, 그때까지 추기경은 내일 있을 미사 강론을 쓰고 계셨다. 함세웅 신부는 내일 5·18 기념미사의 계획에 대해 보고했고 김수환 추기경은 이때도 구속된 두 경관의 안부를 걱정했다. 이렇게 5월 18일 미사와 그 이후의 계획(성명서 발표)이 확정된 것은 바로 하루 전인 5월 17일 밤이었다. 사제단으로부터 내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3,120자. 당신께서 다 아십니다

마침내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를 되돌아보고 박종철을 추모하는 미사에 다녀온 황국자 여사는 집에 들어오면서 “오늘 드디어 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날 김수환 추기경은 미사강론에서 “눈 감고 귀 막고 외면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사제로서 전 생애를 바쳐 이 시대의 구원의 십자가를 지자”고 했다. 이 미사 뒤에 있을 엄청난 일을 예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강론이었다.

1부 미사가 끝나고 김승훈 신부가 제대에 올랐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상을 향해 절을 할 때는 얼마나 간절했던지 장백의가 머리를 덮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의 제목을 먼저 읽었을 때는 성당 안팎이 술렁였다. 성명을 읽는 김승훈 신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듣는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황 여사로부터 발표사실을 듣고 나와 온 가족은 환호했다. 그 동안 내가 붙들고 하루하루 노심초사했던 일들이 이렇게 내 손을 떠난 것이다. 당초 감옥의 이부영이 보낸 편지는 한 두 언론에 제보해서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어떨겠냐는 방향까지 제시했지만, 나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것은 내가 수배 중이라 언론과 직접 접촉하는 것에 대한 한계와 두려움이 있었고, 나는 그것보다는 보다 폭발력 있는 폭로 방법을 모색해야 했던 것이다.

사제단의 발표가 있는 뒤 한동안은 고요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부인

했다. 그러나 숨죽이는 3일이 지난 5월 21일 오후 6시 정구영 서울지검 검사장이 범인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월 26일에는 총리를 비롯한 전면 개각을 단행했다. 29일에는 검찰이 은폐·축소·조작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축소·조작을 은폐한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단장 박치원, 5과 과장 유정방, 5과 2계장 박원택을 범인 도피죄로 구속 수감했다.

그러나 사제단의 이름으로 6월 22일에 발표된 성명 ‘진실이 밝혀지기 보다는 은폐되고 있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5공 정권은 한편으로 시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파묻는 그런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진실이 그런대로 밝혀져 치안본부장 강민창이 구속되기까지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한편 5월 18일의 사제단 성명은 민주화 운동 진영에 새롭고 힘찬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국민적 경악과 분노가 함께했기 때문에 더욱 동력이 붙었다. 5월 23일에는 ‘박종철 군 국민 추도 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규탄대회를 6월 10일에 갖기로 했다. 이것이 모체가 되어 5월 27일에는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여기서 6·10 대회를 박종철 군 사건조작 규탄뿐만 아니라 4·13 조치의 철회와 민주 개헌 쟁취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하여 본격적인 6월 항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는 내가 그 초고를 쓰고 사제단이 발표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의 글자 수가 얼마인지를 헤아려 보지 않았다. 다만 원고지 18매의 분량이었고, 11개항으로 되어있다는 것 정

도를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그 성명이 3,120자로 된 것이었다는 걸 안 것은 김승훈 신부가 돌아가신 후, 그가 자서전에 남긴 글을 통해서였다. 그가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또 떨리고 긴장되는 가슴을 안고 그 글을 발표했으면, 그 글자 하나하나를 헤아려 그것이 3,120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겼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 온다.

함세웅 신부가 ‘한국교회의 바위’였다고 했던 김승훈 신부가 사제단의 단장 격이랄까, 대표 자리를 맡았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서울의 사제단 신부 가운데는 가장 연장자였던 자체가 김승훈 신부로 하여금 대표 자리를 맡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신현봉 신부가 구속되면서 전국 사제단의 대표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김승훈 신부가 살아생전에 즐겨 썼던 말이 “당신께서 다 아십니다”, “괜찮아, 하느님께서 다 잘해주실 거야”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나는 김승훈 신부가 즐겨 썼다는 이들 말에서 그 어려웠던 시절, 김승훈 신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신에게 지워진 짐이 너무도 힘들고 무거웠기 때문에 하느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김승훈 신부의 절실한 기도를 보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 떠 맡겨진 이 짐, 역사의 짐을 제가 비록 지고 가기는 하지만, 너무도 벅차고 힘들으니, 하느님 당신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와 하느님께서 다 아시니 “괜찮아, 하느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하는 자기 위안의 말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한 기도에 견주어지는 것이다.

에필로그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은 조작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세상은 급격히 달라지고 있었지만 나의 사정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여전히 수배는 계속되었다. 6월 항쟁이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 황인철 변호사가 역촌동 고영구 변호사 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이부영의 편지를 받고 나서부터 나는 모든 것을 고영구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영구 변호사는 황인철, 홍성우, 조준희, 조영래 변호사 등과 왕래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구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황인철 변호사는 내가 고영구 변호사 집에 있는 것을 눈치로 알게 되었다.

그가 나를 찾아온 용건은, 나를 지수시켜 고영구 변호사와 그 가족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지수하는 것만이 고영구 변호사 가정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며, 또 그것이 그간 고영구 변호사가 이부영과 나를 보살펴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그 말은 사리로는 천 번만 번 옳은 말이었지만, 나는 정서적으로 전혀 그의 말에 따르고 싶지 않았다. 남영동이 어떤 곳인지, 수사와 구속이 얼마만한 고통을 수반하는지 모르면서, 나를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만 같아 그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아마도 나의 수배가 더 오래 계속되었더라면, 고영구 변호사 집을 나와 나 나름대로 다른 도피처를 찾아 나섰을 것이다.

그렇게 엉거주춤한 상태에서도 6월 항쟁은 ‘6.10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호헌철폐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를 거치며 죽은

박종철이 최루탄을 맞은 이한열과 만났고 6월 26일의 국민평화대행진을 거쳐 6.29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에 대한 수배해제가 공식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는지 나는 모른다. 6.29 선언이 있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나는 조심, 또 조심했다. 내 불광동 집에 상주하던 경찰과 중앙정보부원이 철수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나는 조심스럽게 바깥나들이를 시작했다.

아마도 7월 말이나 8월 초순이었을 것이다. 나는 비로소 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수배기간 중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것이 아내였다. 옆 친 데 곁친 격으로 친정 오빠인 신흥범이 1986년 12월, 『보도지침』을 폭로한 것과 관련, 구속되어 옥바라지도 함께 해야 했다. 아이들도 생각한 것과는 달리 의연하게 잘 자라주었다.

6월 항쟁이 끝나고,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승리에 흥분해 있을 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이제는 세상에 밝히려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사양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했던 조그만 역할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내세우지 못하는 검양에서라기보다는 그 과정이 밝혀질 때, 남영동을 비롯한 반공 경찰들의 보복이 두려웠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가를 대학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반공을 입에 달고 살았으며, 그 반공을 위하여 사람 하나쯤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남영동 또는 이른바 대공분실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민주 인사들을 너무 쉽게 고문으로

간첩으로 만들고 용공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진실을 말하자고 할 때마다 사양하거나 뒤로 미루었다. 1990년 전병용이 김도연의 ‘공동체’ 출판사에서 『감방별곡』을 내면서 이제는 사실을 말하자고 했을 때도 좀 더 두고 보자고 말했다. 그들이 어찌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큼 나는 그들이 두려웠다. 그래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그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이 온전히 만천하에 알려지기까지는 몇 개의 단계와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위에, 6월 항쟁의 승리로 우리가 얻어낸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나는 이 나라 반공 경찰의 전횡과 공포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한다. 비로소 고문을 통한 용공조작의 뿌리 깊은 적폐 하나를 어느 만큼은 걷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고문을 통한 용공과 간첩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없어지고 기세등등하던 반공 경찰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일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그 해 늦여름인가 초가을쯤, 김수환 추기경이 함세웅 신부와 함께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셨다. 일본에서 온 송영순(바오로), 고영구 변호사 내외도 함께 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등대지기’라는 노래를 불러 우리 모두를 감격시켰다. 김수환 추기경의 우리 집 방문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경찰과 중앙정보부원의 상주와 감시로 나와 우리 집을 이상한 눈으로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지워 주었고, 주눅 들어 지냈던 우리 가족들의 어깨와 기를 펴주었다.

지내놓고 보면, 이부영의 구속과 나에 대한 수배, 시국사범이 넘쳐

이부영이 서울구치소 아닌 영등포교도소로 수감된 뒤에 이른바 고문 경관으로 차출된 두 사람이 바로 그 영등포교도소의 이부영이 있던 사동으로 오게 된 것, 안유 경비계장이 우연찮게 치안본부 대공분실 사람들과 고문 경관들과의 면회 과정에 입회해서 진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이부영이 취재해서 편지로 쓸 수 있었던 것, 전병용이 잡히기 이틀 전 그 편지를 내게 전할 수 있었던 것, 황국자 여사가 명동성당과 구과발성당으로 지성스럽게 발품을 판 것, 김승훈 신부가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맡아 지기로 하고 구속을 각오하면서도 성명을 발표한 것 등 그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했던 고비고비를 잘도 넘기고 여기까지 이어왔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그들의 손에 끝까지 잡히지 않은 것도 그랬다.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큰 역사의 수레바퀴도,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 개인적인 역할도 그랬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살폈으며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오묘한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결국 진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전 과정은 말해주고 있다. 그때 인간은 그 진상이 드러나게 하는 데 조그만 조력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조력~~